

Experience Report (파견결과보고서)

성명	최진	학과(전공)	전산학부
파견대학	난양이공대	파견(참여)기간	2022.06.29 - 2022.07.30
파견 프로그램명	GEM Trailblazer Summer		

1. 출국 전 준비사항

A. 프로그램 지원과정

학교에서 업로드해주신 공고를 보고, 지원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합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체 과정 안내를 받고 파견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B. 파견 대학에서의 안내

NTU 측에서의 안내는 초반에는 메일로, 입사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텔레그램으로 주로 이뤄졌습니다. 학교 생활 한달 동안에는 대부분의 공지가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져서, 익숙해지는 데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안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 메일로 질문을 드리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 비자 신청 (비자 유무, 신청방법, 소요기간, 경비)

학생 신분으로 싱가포르에 입국하게 되면,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는 NTU 측에서 안내를 상세히 해주겠지만, ICA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돈을 일부 입금하면 됩니다. 그 후에 입국 후 해당 빌딩에 직접 가서 학생 비자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완료 단계입니다.

D. 항공권 구입 및 비용

항공권을 항공사 마일리지로 구매해서 따로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E. 보험 가입 방법 및 비용

보험은 제가 싱가포르 이전에 영국에서 5개월동안 교환학생을 하고 곧바로 온 상태라서 이미 장기 해외 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마이뱅크 여행자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가입했습니다. 코로나19 커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입하였으며, 20만원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이 보험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컸으며, 제가 선택한 주요 국가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F. 수강신청 (강의 수강도 함께한 경우) / 연구실 배정 (연구 참여 프로그램인 경우)

수강신청은 NTU 측에 제출한 지원서로 이루어졌으며, 신청하고자 하는 수업들의 시간표를 직접 확인해서 겹치지 않는 수업들로 신청을 해야했습니다. 학생이 따로 해야 되는 신청 과정은 없었고, 신청이 완

료되면 NTU learn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학업 관련 (A. 강의수강과 B. 연구참여 중 해당되는 것으로 작성)

A. 강의 수강 (수업 환경, 수업 내용, 수업 방식, 과제, 시험, 강의 평가 등) -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저는 두 개의 과목을 들었습니다.

- 1) Human-Computer Interaction: 수업은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들었고, 교수님이 대부분 일방적인 정보전달을 하시고 가끔 질문을 던지시면서 수업 참여를 유도하십니다. 수업 내용은 HCI의 이론적인 배경이며, 소프트웨어를 초반부에, 하드웨어를 후반부에 배웁니다. 과제는 크게 Low-fi prototype, Hi-fi prototype 만들기가 있으며, 다른 학생의 Low-fi prototype에 대한 review report를 작성하는 것 또한 있습니다. 시험은 전범위였고, 난이도는 평소 수업 시간 중에 교수님과 함께 풀었던 문제들과 퀴즈와 아주 비슷하게 출제되어서 쉬웠습니다.
- 2)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Mining: HCI와 같은 교실에서 들었고, HCI에 비해서는 학생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수업 내용은 기계 학습의 기본 개념(Linear Regression, SVM 등)과 일부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배웠습니다. 과제는 총 2개가 있었는데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과제 하나와, 학습 모델을 짜서 report를 작성하는 과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험은 전범위였고, 난이도는 중상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드리자면,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친절하셔서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생들이 과제 due date이 너무 빠르다, 라고 말하면 due date이 뒤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due date이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한 과제에 대해서만 3번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운영 방식이 처음이라서 다소 당황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리 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또한,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그런 것 일 수도 있지만 일부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서, 덩달아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적도 많았습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에서 20분 이상 지각하면 결석 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아무도 그걸 지키지도, 교수님이 체크를 하시지도 않으셔서 9시에 수업이 시작한다고 하면 총 인원 약 18명 중에서 저 포함 3명만 와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 달만 배우는데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전공 과목을 수업하려 하다 보니 교수님들도 급하게 가르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수업을 한달에 듣는 것은 크게 추천 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3. 비용

A. 기숙사 (숙박)

해당 부분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B. 식사

교내 식당은 한끼 식사 당 5-6달러 정도였고, 외식을 하게 되면 20-30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C. 기타 생활비

한달 동안 교통비는 약 100달러(번화가를 많이 가지 않았음), 초기 비용 약 150달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교내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매한다면, 초기 비용을 조금 더 저렴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학교 캠퍼스

A. 학교 안 시설 및 분위기

학교 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목하고 좋습니다. 행정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나무도 많고 산책로가 있어서 걸어 다니기 좋습니다. 모든 건물 실내에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져 있어서 항상 긴 팔 옷을 들고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외부에도 앉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가끔 비가 와서 시원할 때는 외부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기후 특성 상 벌레가 많아서, 화장실(보통 화장실이 야외에 있습니다.)에 거대한 바퀴벌레들이 출몰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학식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같은 업체이다 보니 계속 먹기에는 좀 질리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대비 양이 매우 많아서 식비를 아끼기에는 좋습니다.

교내 순환버스가 있어서, 걷기 너무 더운 날에는 순환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NTU GO 라는 어플이 순환버스의 위치를 표시해주는데, 사실 어플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버스는 주말이 아니면 보통 5-10분 간격으로 옵니다.

B. 주변환경 및 분위기

NTU 캠퍼스 주변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고 거의 고립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였지만, 번화가로 가려면 최소 30분 정도 이동을 해야합니다. 공부에 집중하기에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 그 외 사항

캠퍼스 내에서 결제를 할 때, Master나 Visa 로 결제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NETS나 현금을 받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준비해서 가야합니다.

5. 언어 사용

싱가포르에서 전체적으로 모두가 영어를 다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최근 중국인의 유입이 많아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우선 교내 식당의 대부분의 직원 분들이 영어를 정말 못하십니다. 가령 음식을 주문할 때, "Can I have one chicken fried rice please?"이라고 하면 못 알아 들으시고, 만약 chicken fried rice가 6번 메뉴라면 "Six, one" 이라고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십니다. 더 불어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중국어로 말을 거시기에, 싱가포르에서 제일 많이 말한 영어 문장이 "I don't speak Chinese."일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오거나 싱가포르에서 영어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최악의 경우, 흔히 말하는 'Singlish'나 중국계 영어 발음에 동화되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어 발음이 퇴화되는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기숙사/숙소 이용(입실/퇴실 시기, 주의사항 등)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한달 동안 기숙사를 이용하였는데, 입실(체크인)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해서 굉장히 불편하였습니다. 저녁 이후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구매하면, 무조건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체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체크인을 하면 기숙사 키와 에어컨 카드를 줍니다. 기숙사 키로 방과 기숙사 화장실을 열 수 있으며, 에어컨은 사용한 만큼 돈을 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에어컨 카드를 끊고 사용하고서 필요할 때 충전을 하면 됩니다.

기숙사마다 내부 시설 정도가 달라서 정확한 묘사는 아니겠지만, 제가 거주한 Hall 11같은 경우에는 복도식 기숙사였기 때문에 복도에 벌레가 많았고, 특히나 방에 있는 창문에 방충망이 굉장히 허술해서 벌레가 정말 잘 들어옵니다. 친구들의 경우에는 한번 환기를 했다 하면 개미가 계속 들어와서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복도식이다 보니 주방시설, 빨래방 등이 모두 야외와 연결되어 있는 '반실내' 느낌이라서, 항상 사용할 때마다 벌레가 있을까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7. 학교 생활

전체적으로 만족했습니다. 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전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로 교환 오기에 딱 좋은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에도 멤버 등록을 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변화가와 너무 먼 위치이기 때문에, 장기 교환학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 교환학생 지원 서비스 &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도

NTU와 KAIST 측 모두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좋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과 안내를 충분히 받았으며, 그래서 안전하고 즐거운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9. 동아리 등 교내·외 활동

한달 단기 교환이라서 동아리와 같은 교내 외 활동에는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10. 여행 등 개인 활동

NTU는 싱가포르에서 아주 외곽 지역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사실 여행을 다니기에는 아주 안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다들 알고 있는 주요 관광지(Marina Bay Sands, Merlion 등)으로 가려면 기본 편도 1시간 15분 ~ 1시간 30분 정도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변화가는 Jurong Point인데, 꽤나 큰 쇼핑몰이 있어서 외식을 하고 싶거나 쇼핑을 즐기고 싶을 때 가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동시간이 편도 30-4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대학 앞의 변화가처럼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반 2주 반 동안에는 다양한 곳을 방문하려고 노력했지만, 후반 2주동안에는 이동시간 및 교통비가 아까워서 계속 교내 마트와 학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교내 North Spine에 위치한 마트에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되기도 하고, 외부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단기 교환으로 NTU에 방문한다면 교내 마트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1. 그 외 도움 되는 정보 및 주의사항

교내 치안이 좋은 편이라서 밤에 산책하거나 조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밤에 운동하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마음 놓고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야생동물이 캠퍼스 내를 돌아다녀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12. 파견 소감

영국에서 5개월 간 교환학생 생활 후 바로 싱가포르 교환학생 생활을 이어서 했는데,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를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다른 문화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동양권 문화를 바탕으로 서양권 문화가 한 방울 떨어트려진 느낌이었기에, 한국과는 다른 동양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해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3. 사진 첨부



1. 수업을 주로 들었던 The Arc
2. 친구들과 함께 갔던 Marina Bay Sands
3. NTU 측에서 열어주신 문화 행사 참여